

<h1>보도자료</h1>	보도일시	2017년 7월 3일(월) 조간
	담당자	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(044-550-4610, cbkcho@kdi.re.kr) 이우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(044-550-4130, uj_lee@kdi.re.kr)
	배포일시	2017년 6월 30일(금) 09:00
	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KDI 북한경제리뷰 (2017년 6월호)

- KDI는 6월 30일 『KDI 북한경제리뷰1)(2017년 6월호)』를 발간, 동북아 경제질서의 변화 과정과 북한의 체육정책 동향 및 남북한 스포츠교류협력 과제를 분석한 각각의 논문, 동북아 경제질서의 변화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좌담을 수록2)
- ‘동향과 분석’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경제질서의 재편 가능성을 금융·무역질서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, 북한의 체육정책 동향과 남북한 스포츠교류협력 과제를 분석한 논문이 담김.
 -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‘동북아 경제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’을 통해 향후 중국이 메가 FTA, RCEP³⁾ 등 금융·통상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구도를 형성하겠지만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,

1) 1998년 10월 창간된 『KDI 북한경제리뷰』는 북한경제의 실태, 남북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과 관련한 주요 이슈 분석을 제공하는 월간 학술지

2) 북한경제리뷰 6월호는 최근 발간된 이석·조병구 편 「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」의 경제 분야 주요 내용을 다룸. 해당 보고서에서 동북아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한 편의 논문과 이를 토대로 실시한 주요 연구진의 좌담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수록함.

3)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,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

그 이유로 중국의 장기성장률 전망치와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꼽음.

- 중국이 외교·안보분야에서는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

○ 김동선 경기대학교 교수는 ‘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의 추진기조와 과제’를 통해 북한의 체육정책 동향과 1960년대부터 전개된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의 주요 과제를 평가하고 분석함.

-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 안정화를 위해 ‘체육강국 건설’을 강조하고 체육과학기술 향상과 대중화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, 대북정책은 강경하되 남북 간 스포츠교류협력은 비용 측면에서 실효적(cost-effective)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

□ ‘북한경제연구협의회’는 ‘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: 경제질서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’라는 주제로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,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,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,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의 논의를 소개

○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경제 분야에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할 정도로 크진 않지만 동북아 또는 한반도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사실상 확대돼 향후 한국은 중국의 성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

○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TPP⁴⁾를 탈퇴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지만, 중국 내 제도와 경제규모, 통상협상의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중국 중심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

-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총액 또는 용량 기준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상품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정도, 중국을

4) Trans-Pacific Partnership,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

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

-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패권을 통해 얻는 이익도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함. 미국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 사례로 트럼프 정부의 TPP 탈퇴를 언급하고, 미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 및 교역⁵⁾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
 -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한·중 교역방식이 다변화함에 따라 향후 한국은 특정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, 주위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균형상태(equilibrium)를 모색해야 함.
-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상품무역 규모가 미국을 앞질렀다는 통념이 있지만 무역의 규모보다는 질적 구조와 수준, 주도성⁶⁾ 등을 강조. 금융, 서비스업에서 높은 기술과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은 낮다고 봄.
 - 한편 중국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상품무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한·중 경제는 여전히 상호 의존할 부분이 있다고 진단,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고 밝힘.

❖ 첨부. 『KDI 북한경제리뷰(2017년 6월호)』 목차

5) 미국과 중국의 접근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서비스 산업을, 중국은 상품 교역을 중시하고 있음.

6) 주도성이란 상품무역의 구조를 과연 누가 주도하는가 또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가에서 나타날 수 있음.

❖ 첨부. 『KDI 북한경제리뷰(2017년 6월호)』 목차

□ 동향과 분석

- 동북아 경제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
 -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
-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의 추진기조와 과제
 - 김동선 경기대학교 교수

□ 북한경제연구협의회

-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: 경제질서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
 -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,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,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,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